

수박 계약서

답은 없습니다. 저 글로부터 파생된.
당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부디.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생각을

— 우 리 는 다 른 사 람 들 이 아 니 넘 쳐 나 는 사 물 들 에 들 켜 쌓 어 있 다

사물은 충분하게 있는 것을 넘어 너무도 많이 있으며. 거기다 모든 사람을 위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강렬한 기대가 그곳(마트. 백화점...)에 있다. (...) 불필요하며. 기능을 넘어서 중시한 사물들이 사회적 본질을 흉내내며 한계를 넘어서며 존재한다. 사물의 황홀경. . . 이처럼 사회에서 소비는 하나의 신화이다 (...) 현대사회가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말하는 방식으로서의 신화.

二 사물과 소비를 통해 서는 인간도 삶도 사랑할 수 없다. 하지만 무언가 구매해야만 기쁨이 완전해진다는 속사임이 끝지 않고 소비자의 커를 과고든다. (...)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디바이스가 없어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고요할 수 있는 능력. 무언가에 뛰어들 능력. 집중하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사실이다. (...)

· 망상을 버리고 라인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 계속 밖으로만 나다니지 말고
자신에게 가는 길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생명과 사물의 차이를. 행복과 흥분의 차이를. 주간과
목적의 차이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폭력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사랑을 향해
이미 첫 걸음을 뗀 삼이다. 마르코스의 말을 빌리자면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존재하는
사람이다.

스페라클은 이미지들의 집합이 아니라. 이미지들에 의해 매개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이다. 스페라클은 고도로 축적되어 이미지가 된 자본이며 삶과 불리친. 만들어진 월요이자 모두가 꾸어야 하는 월연적인 꿈이다. 스페라클은 :사술에 묶인 현대사회의 악몽이다. 우리가 스페라클 그 지배 이미지를 놓고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 삶의 영역은 축소되며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이고 욕망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스페라클은 생산과 그 당연한 거절인 소비 속에서 이미 행해진 선례을 도처에서 공정하지만 정작 삶을 부정한다.

四 친정한 교회는 호혜성과 상호부조에 기반해야 한다. 친정한 교회는 만족한 물건의 이동이 아니다. 종여에서 주는 자는 만족해 대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함께 준다. 왜냐하면 대상은 주는 자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회에서 우리는 삼중의 의무를 발견한다. 주어야 할 의무. 받아야 할 의무. 그리고 보답해야 할 의무. 현대의 술수한 시장 거래와 달리. 친정한 교회는 사회적 유대를 창조하고 강화한다. 따라서 올바른 교회이란 계산된 등가성의 문제. 교환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의 망 속에서 상호부조와 연대를 구축하는 총체적 사회 철상인 것이다. 친정한 풍요는 축적이 아닌 충환에서. 소유가 아닌 나눔에서 발견된다.